

설교제목 :새 벤엘로 올라오라

설교본문 :창세기 35:1-25

설교날짜 :2020. 01. 05

서론

창세기 35장은 제 강해를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창세기 35장을 2020년 그리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야곱은 27장에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거부가 됩니다. 삼촌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자기가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언뜻 보기에 겁쟁입니다. 꾀는 많지만 겁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자기생각으로 산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길에 반드시 막힘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합니다. 자기생각으로 뭔가 잘 된다 그래서 절대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산 삶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의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인생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야곱의 전체 인생을 바라보자면 분명히 합당치 않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보기에 괜찮았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삶을 거룩하게 아직까지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늘 믿음이라는 그 줄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꼭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입니다. 형을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도 결국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삶의 중심에는 면면히 믿음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한 포인트가 되어야합니다. 아직까지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그 삶의 줄기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이 알게 자기 뜻대로 살아도 붙잡고 있는 어떤 관계성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그 형이 무서워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앞세우고 자기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뒤에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존본능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쪽팔리는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는 맨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서 생긴 인생의 막힘은 자기 생

각으로 풀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런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풀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풀어서 인생은 계속 꼬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시간들이 되어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그 원수와도 화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하는 것이지 먼저 사람, 내 상황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그런 얇은 솔수로 통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되게 했습니다. 드디어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압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환도 뼈를 맞고 자신의 악함들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절뚝절뚝 절지만 브니엘의 아침의 그 영광만큼이나 야곱은 새롭게 변화되는 감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형을 만나서 감격하고, 포옹하고, 화해를 하며, 형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감격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숙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베엘로 가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 흘러 세겜 성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압복강의 치열한 영적전쟁, 또는 회개의 역사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물론 하나님을 만난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앞세우고 살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감격과 성령의 통치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에게 세상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식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견고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33장에 보면 야곱은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33장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던 말이 나옵니다. 이 예배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함이나 그런 감격이 없는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종교라는 틀 속에서 예배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여전히 예배는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든 영혼의 상태에서 드린 예배는 아무 유익도 감격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의 예배가 이전의 부흥의 시대 때 드렸던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대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주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향해서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그들이 거룩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신실한 예배 가운데 늘 강림하셨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끝내는 날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전부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그것은 거룩의 통로도 있지만, 많은 쓰레기를 쏟아내는 통로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배 자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예배를 두 번 드리고 나면 힘이 새롭게 솟아났는데 지금은 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것들을 틀어막는데 온 힘을 쏟다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탈진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예배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직도 예배 좋아요” 저는 이제까지 사역이나 목회를 누구랑 비교해서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예배를 비교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성도, 성경이 원하는 우리의 거룩의 기준.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 새로운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5장을 통해서도 제가 선포할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경향성에 찌든 야곱처럼 이제 종교적인 예배는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식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 물들게 되면 반드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만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세상에 물들면 식어지는 것은 예배이고, 식어지는 예배를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거룩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원수에게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세겜 성에서 최첨단의 도시에서 살면서 드디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상 구경 갔다가 딸이 강패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완전히 죽여 버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가족들 모두 죽이려는 위험천만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의 시간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배경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경향성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 자체가 나쁜 것도 나쁜 것이지만 세상에 물들면 예배가 죽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35장을 보겠습니다.

본론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패역한 상황 속에서 은혜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 나타나셨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별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이제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확실히 저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함도 있고 환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

분이 얼마나 많은 세월동안 악한 짓을 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사역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벌써 끝내버렸어야 됩니다. 저건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이나 어떤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늘 그런 식으로 인애하시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 인애하시든 안하시든, 하나님이 진노하시든 안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환란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항상 그분은 나에게 손을 내미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또 해결하려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원리와 똑같습니다. 물론 문장 그 자체로는 야곱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신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한다는 것은 '그분이 불러야 온다.' 이런 뜻 보다는, 그분은 벌써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를 내가 갖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문제를 그분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악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그분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측면에서는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절대 절명의 시간 가운데 문제 해결의 선포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엘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베엘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엘은 어디입니까? 베엘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낚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게 문제가 계속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에 얽매이고 있는 어둠들을 해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서는 인생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베엘로 올라가라고 말하셨는데, 세상에서 빈둥거리다가 드디어 그렇게 타락한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은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해결책은 무

엇이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포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가졌던 열방 교회의 부흥의 시간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예배시간에 하나님은 거의 90%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묶인 사람은 그 예배시간에 만나셔서 축사하셨고,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하셨고, 그 예배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주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다시 사모해야 합니다. 그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 앞에 휴지가 산처럼 쌓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가운데 묶인 것들을 하나님이 만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축사하면서 해결하기 때문에 게워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지금은 거의 맨송맨송한 상태에서 예배를 끝냅니다. 이 마지막 10년의 주기는 남은 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남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나? 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질 텐데, 그 점점 더 거룩하게 남은 자는 바로 그 거룩을 예배 가운데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서 살 소망을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 어둠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어두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방지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던 음식을 이 겨울에 그대로 바깥에 방치 했을 때 먹던 음식이 썩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겨울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여러분이 먹던 음식을 바깥에 두면 하루도 안가서 다 쉬어버립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둠을 방지하면 그 어둠이 전체로 어두워지는데 시간이 급속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어둠을 해결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 어둠은 여러분 전체를 어둠게 만드는데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살길은 소망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열방 교회가 다시 가졌던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던 일주일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그냥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주간의 삶은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그런 감격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실패하면 이 야곱처럼 인생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렇고, 그 사람이 뭘 많이 알아도 그렇고, 모든 것의 결정자인 그분을 만나지 않고 뭘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와 만남을 갖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의 확증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분명한 진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벤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빈

동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2020년에서 2030년의 모든 10년의 주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주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자는 인생을 승리할 것이다.' 엘베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이라면 금식이고, 세상을 놔야 하면 세상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라도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은 저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놀라운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5장은 새 시대를 여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을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주님 믿고 나서 일천 번 예배를 작정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역회사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의 모든 시간, 새벽기도의 예배시간의 장소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꼭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린지라는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얀 섬광이 그날 임하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지금 제 인생을 22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업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출장을 간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먼저 그곳에 가면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부터 봅니다. 주일이 끼면,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를 먼저 점검합니다. 항상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도 제가 주일예배를 단순하게 그냥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주일예배는 반드시 2-3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주일은 제가 거의 20시간 이상을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절대로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일예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의 전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0년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예배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예배가운데 쓰레기를 쏟아내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예배에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새벽기도 해야 합니다. 이 날 만큼은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내 어둠을 처리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기에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애통하

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넉넉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든지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이것을 봐야합니다. 지금은 내게 어떤 것이라도 영원을 잃어버리는 일에 몰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되든, 그것이 직장생활이 되든, 그것이 자녀문제가 되든 무엇이든지 영원을 빼앗기고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네 인생의 문제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 베엘로 올라가라”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새 베엘로 올라가는 예배가 날마다 갱신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가 새 베엘의 역사를 써야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떡함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분의 존재 자체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늘 나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여러분에게 드러나시길 원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되고 닫아놨기 때문에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마니까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2020년 이 첫 예배에 결단해야합니다. ‘나는 예배에 승리하리라! 이제 남은 생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만, “김민호 목사야, 삼성그룹을 주겠다. 너 영광스러운 예배와, 삼성그룹 어느 것을 선택할래?” 저는 숨도 안 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선택합니다. 주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의 고백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많이 축복하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봐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늘 이야기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한 조그만 교회가 모여서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전체가 덮어씌운 것을 봐야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합니다.

2절,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 전체가 이런 예배를 준비해야합니다. 예배 인도자인 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를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지난 12월 집회 때 영광스러운 예배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모든 영광스러운 예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10여 년 동안 계속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10년의 주기가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10년에 모든 관심은 남은 자를 일으키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제 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분명히 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만 예배가 죽어가고 있었지 전 세계 남은 자들의 예배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금가루와 보석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임재 가운데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합니다. 갈망하고 사모해야합니다.

2절에 그 준비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경향성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대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문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통로인 핸드폰을 다 쥐고 있으니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핸드폰을 한다고 합니다. 세 시간을 핸드폰을 하니 이 3 시간을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제가 헬스클럽으로 운동을 하러 가면 신경질이 납니다.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왜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하나 쓰면 오래 쓰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두 세상 경향성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경향성을 버려야합니다. 세상에 물들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세상은 내일이면 불타 없어질 기업이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했듯이 세상과 하나 되면 세상과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 놔야합니다. 청년이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이것 감당 못하면 버려야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샷배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보면 뉴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는 것마저도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거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뉴스 보는 것까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지금 아마 웹툰, 영화, 스포츠, 게임,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통로들을 열어놓고 예배를 오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통로

를 열어놓고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릴 수 없습니다. 4절에 가면 모든 이방신상의 우상을 상수리나무에 묻습니다. 전부 묻어야 합니다. 핸드폰은 되도록 멀찌감치 떨어뜨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 자체의 전파가 벌써 우리 뇌에 안 좋은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 경향성을 그대로 놓은 채 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 성도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아무도 텔레비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저의 선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핸드폰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부 핸드폰을 버리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직장생활 하는 사람, 그러면 사업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핸드폰 없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관두든지, 하여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놓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나는 시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잣대와 경향성 이것 모두 다 버려야합니다.

세상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벨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사실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생존본능, 인본주의도...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기가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폐렴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은 죽을병이었습니다. 100년 전도 필요 없습니다, 약 70-8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한 봉지 털어 놓으면 끝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시스템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도록 점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도 일단 약을 바로 먹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저를 치유할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가 바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내 삶을 바벨론 시스템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답답할 수도 있고, 왜 그랬느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저는 바벨론 시스템에 묶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을 먹어라" 하면 약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풀어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해결해주시는 것이고, 안 해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얽매는 것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세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눈 수술할 때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눈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지금도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다렸던 시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그리고 병원에 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치유를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이왕 기다린 거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주시지. 더군다나 제가 눈이 확 나빠진 이유는 마지막 금식을 하고나서입니다. 제가 21일 금식을 하고나서 눈이 확 나빠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눈이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야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 계시가 굉장히 날카로워졌다

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를 안보고 설교를 하면서 계시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결정적인 종말론이 다 풀렸습니다. 또 더군다나 악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건 왜 저러냐?” 맨날 판단했었는데, 눈이 나빠지면서 별로 그런 판단을 안 합니다. 그때는 저 뒤에도 다 보였으니 뒤에서 예배 엉망으로 드리면 성질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보이니까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보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 눈이 나빠지면서 한두 가지가 유익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운전이야 이 목사님이 하면 됩니다.

자꾸만 바벨론으로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살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인생이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하지만, 세상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벨론 시스템에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려야합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전부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신, 세상의 경향성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죽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갑자기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예배에 오니 예배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으로 훌륭하게 살다가 갑자기 예배에 와서 자기 생각을 죽이라고 말하니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늘 세상이라는 좁은 안목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희미한 빛을 일주일 내내 보다가 참 빛인 그 영광의 빛을 확 비춰주니까 예배시간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에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영광스럽다.”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것들을 풀어내야합니다. 하루가운데 바벨론으로 살면서 새벽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 영광을 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광대한 스케일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참다운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 회복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물론 목사는 것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목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에 얼마일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모른다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신도 시절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의 고통을 알만한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받았던 때는 목사일 때가 아닙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하면서 다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아픔,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여야 되는 아픔, 세상의 경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고통도 알아서, 여섯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세상적 경향성을 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고구조가 인본주의나 바벨론의 생각 속에서 사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는 물론 했고 자기 전에 반드시 교회에 가서 하루의 삶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30년 전에 만나자마자 바벨론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들에 얼마인 것들을 풀어내지 않고는 하루를 그냥 안 보냈습니

다. 이것을 게을리 하면 우리는 세상적 경향성에 물들게 되어있습니다. 바벨론의 사고 속에서 자꾸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묶임 속에서 오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인본주의와 바벨론이라는 것은 스케일이 좁습니다. 바늘구멍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그러니 바늘구멍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핵심입니다. 야곱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것은 모세 이후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태를 선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입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성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았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의를 주셨고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혀졌구나."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죄를 짓고 회개한다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는 하박국에 말하는 다섯 가지 욕구에 대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방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소유욕이 왜 악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정욕이 왜 악인가? 명예와 성취욕이 왜 악인가? 쾌락욕이 왜 악인가?" 사실 이것이 악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그렇게 회개해 본적도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깊은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열방 교회가 명예와 성취욕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동체 총회 때입니다. "나는 왜 권사가 아니야. 나는 왜 안수집사가 아니야. 나는 왜 장로가 아니야." 이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안 시켜 준다고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유치합니다. 세상에서 찌그러져 사는데 교회에서라도 명예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한 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자격을 가져야 안수집사, 권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교회에 70살이 되면 오래됐으니까 명예권사 받으십시오." 하고 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이것 다 권사 받는데 왜 안 주냐?"고. 다른 교회로 가세요.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명예가 아닙니다. 팔로우로 살아야 될 사람은 팔로우로 사세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수집사 권사 못 받으니 다른데 가세요. 공동체 총회 때마다 명예와 성취욕이 극치입니다.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회개로 들어가면서 다섯 가지 욕구에 대한 회개가 우리가 공동체에서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것도 회개와 연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우리는 계속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성령 충만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단 1시간이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와 상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목의 정욕을 가동시키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에 고정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제 팔복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그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팔복강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팔복은 그 핵심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뇌의 5%능력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뇌의 5%를 사용했는데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신 신성의 능력이 완전히 가동되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나를 당신과 똑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그와 내가 동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30년을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상상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고 이것이 성령에 지배되어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목의 정욕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듣고 말하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상한 마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통로를 닫아버려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Walking by spirit. Leading by spirit.(성령으로 이끄심 받고) Step by step with by spirit.(성령님과 한걸음씩 걷고) 내 의지를 그렇기 때문에 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돈에 민감합니다. 세상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하는 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내 인간적인 모든 악함들을 분명히 보게 할 것이고 내 안에 두신 보혈의 능력이 그것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말씀에 다 속해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 옷을 날마다 그 보혈로 빨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벨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주눅이 들어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수가 적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나서 야곱은 담대하게 베엘로 올라가자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베엘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분은 나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환난 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직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돌파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약속만 붙잡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조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분의 약속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담대하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영광과 기도의 능력은 정비례 합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는 기도에 승리할 것이고 기도에 승리했다면 예배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베엘로 올라가기를 선포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함을 믿고 우리는 새 베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새 베엘로 올라가라.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새 베엘로 올라가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영광스런 예배를 위한 결단, 상수리나무 아래 묻으라.

2절에 대한 실질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0년부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전부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통로가 열렸다면 세상의 통로를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내 인생을 죽인다고 하면 핸드폰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널린 게 땅입니다. 가져다가 다 물어버리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어둠인지는 몰라도 다 묻어야 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결단을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걱정도 팔자입니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못 지키면 40일 금식하면 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예배가 승리다.

아직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전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 결단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가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 올 때 이스라엘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승리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벳엘에 이르고

드디어 그들이 벳엘로 갔습니다.

7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드디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순하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드린 예배와는 다른 예배입니다. '엘벳엘'이라고 말한 것처럼 '벳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예배.

8-15절, 영광스런 예배의 축복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감격스러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열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년 동안 거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꼭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게 레마로 주셨던 말씀이 적힌 성경이 있었는데 신학생 철야를 인도하면서 어떤 신학생이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그 때는 제 것을 별거 다 훔쳐갔습니다. 내 양말, 내 신발, 내 우산 가져가는 놈, 참 이상송배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그 성경책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레마의 약속이 거기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예배의 축복의 레마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도의 약속이다. 다윗의 기도와 예배는 별로 분간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30년의 모든 사역과 제 인생은 그 때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레마의 말씀으로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열방 교회의 모든 사역도 다 그 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나오기 전에 그 약속들로 인해서 제 목회의 모든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은 패역한 교회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듯이 저는 우리 열방 교회에 이런 어둠의 시간이 지나갈 줄을 예상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분명히 그 그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주신 축복들을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약속들은 벌써 저에게,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들입니다. 벌써 이 약속들은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들이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목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봅시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벤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드보라가 죽은 것이 무슨 축복이냐? 그리고 19절에 라헬이 죽었습니다. 또 29절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영광스러운 예배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야곱의 시대를 여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방 교회의 축복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 10년 주기에 남은 자의 부흥은 분명히 옵니다. 이 10년의 주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남은 자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0년이 되면 저는 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5장의 예언이고 이사야 57장 15절의 예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남은 자들에게 완전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

나님은 지금 모든 새로운 시즌을 만들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달한 것처럼 너무 예배가 힘들고 2008년 부흥이 멈춘 이후에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시즌을 계속 열어오면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계속 하나님의 계시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싸움과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우리 열방 교회에서 진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진리보다 더 날카롭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진리를 확증하는 박사들이 학위를 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정작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사역은 어느 새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스페인어로도 설교해야 되고 중국어로도 설교해야 되고 영어로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네팔에서 오라고 하는데 네팔에서는 힌두어로도 설교해야 합니다.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바사(Bahasa)언어로 설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작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시즌을 이제까지 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시즌을 열어놓기 위해서 온 길입니다. 감격스럽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땅 한 평 없지만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땅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땅이 없는 것은 한국만 없는 것이지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시즌을 열고 오셨구나." 이제 정말로 2020년부터 주님께서 기대하시던 새로운 도가 확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원수들이 닫아놓은 문들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운데 말씀 끝나고 싸워야 합니다. 열린 문으로부터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임재, 새로운 권세와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의 권세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확증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기대가 되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야곱은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는 죽었지만 엄마를 생각하면서 드보라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묵임과 나의 악함들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은 마마보이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죽으면서 엄마의 모든 영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 라헬은 누구입니까? 애를 못 낳을 때 야곱에게 "나 애 낳게 해야 돼." 했습니다. 이세벨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백 년 전부터 "나 죽는다. 야곱아, 이제 별미 가져와라." 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산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짐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가셔야 합니다. 열방 교회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시 일으킬 때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새 시대를 막고 있는 영적 묵임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남은 자로서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묵임들을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존본능 떠나갈지이다. 이세벨 떠나갈지이다. 영적 짐 다 떠나갈지이다. 다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지 5년 되던 해였는데 그 때는 매 주일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매일 저를 만나주셨고 매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의 영적인 것들이 계속 새로워졌습니다. 그 때가 제가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매일 같이 거의 산에서 기도하면서 살다시피 하고 밤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새벽에 해가 떴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그 때는 그런 능력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계속 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부흥의 영광스러운 시간보다도 이제 남은 자들을 세우는 이 시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빠름과 깊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남은 자들이 그런 시간을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한 그리고 제가 말씀의 약속을 알고 있는 한 남은 자는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땅 5만평 있다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갑자기 산처럼 많아져야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싸움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이 진리의 싸움을 위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을 왔습니까? 이제 이 시간의 빛을 발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쓴 돈만 300억이 넘습니다. 이 코딱지만 한 교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것은 할 말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준 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절대로 지난 20년의 시간을 단순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둠의 시간이 오면서 우리의 예배가 힘들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이전보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시즌을 계속 열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그런 어마어마한 문들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축복 9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9절 야곱이 빛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처럼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경고 받고 질타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분이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열방 교회야, 너희들의 20여년의 희생을 내가 인정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축복하리라.” 이제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어떤 축복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 10절, 새로운 이름, 정체성을 확인하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사실 이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압박 강에서 벌써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는 20여 년 전에도 열방 교회이고 지금도 열방 교회입니다. 열방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받은 것은 그냥 세계가 크니까 큰 게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시편 2편에 열방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방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제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열방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방 교회가 세워지는 날부터 남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세워진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너무 큰 사역과 수많은 영적전쟁 때문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2020년 첫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이름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남은 자인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열방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먼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후에 말하는 이 모든 축복을 나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달라고 해도 우주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보다 몇 십 배 큰 하나님의 나라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은 식언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그분이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먹고 사는 자이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축복, 리더십의 축복의 회복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것은 아담에게 준 약속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었고 그리고 이삭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이 약속은 면면히 흘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복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리더십의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달람 동굴의 오합지졸 400명을 이스라엘 통일의 주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열방 교회는 누가 봐도 400명의 오합지졸입니다. 20년 동안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오면서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리더들은 물론이거니와 기업가, 가정의 부모,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억 주고 1억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것 만들어라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축복은 분명히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움직인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나라와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35억의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동일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축복, 왕들을 세우는 권세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을 세우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왕들을 세우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핵심적으로 교회에 주는 권세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지만 이 권세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축복, 가나안 땅, 영적 안식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 시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열방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식의 모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이 이제 안식과 영화로움의 모델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모든 약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20년의 주기에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지이다. 영화로움에 들어갈지이다.

약속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바뀐 이름의 확증, 정체성. 리더십의 축복. 나라와 왕을 세우는 권세.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다.

13절, 약속의 확증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듯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확증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4절, 약속의 확증인 기름 부으심과 헌신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오늘 이 약속을 확증하는 기름 부으심이고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나는 믿고 이 약속대로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 약속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담임목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고 왔듯이 이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약속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15절, 새 벤엘의 역사를 만들라.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벤엘이라 불렀더라

어제도 벤엘이였고 오늘도 벤엘이였고 앞으로도 벤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벤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벤엘인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계속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더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새 벤엘의 역사. 우리 열방 공동체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 벤엘의 역사를 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문을 활짝 여세요. 원수가 묶어놓은 모든 문들을 다 부숩버리세요. 하나님,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해 주시옵소서. 리더십의 축복이 확증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왕을 세우는 권세가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영화로움으로 들어가는 시즌이 오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 벤엘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소서. 새 벤엘로 올라가라! 새 벤엘로 올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가 묶어놓은 문들이 열릴 지어다! 새로운 문들이 열릴 지어다! 새로운 임재, 새로운 권세,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름부으심, 새로운 시즌, 새로운 약속!

본격적으로 싸우세요.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들아! 너희가 묶어놓은 모든 묶임들을 예수 이름으로 모두 파기하노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충성스러운 천군 천사들아 문들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시대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본격적으로 리더십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제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업, 부모, 선생님들, 모든 리더들. 하나님이여 이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강력한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리더십의 회복인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왕을 세우는 권세. 그래서 제가 열방 교회를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 교회는 바로 왕과 나라를 세우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열방교회에 권세와 능력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능력, 새로운 능력을 받아라! 원수를 짓밟아 버리세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할 지어다!

창세기 22장에서 이 권세는 네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원수의 모든 무장을 해제할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이 권세와 능력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이 권세와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불의 능력을 새롭게 받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불의 파장이 전 한반도를 덮게 하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역사를 파괴하는 강력한 불의 능력!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약속을 입증하는 기름을 야곱에게 붓듯이,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기름 부으세요. 스가랴 4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황금의 기름 부으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방언으로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예언이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즌을 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지난 20여 년 동안 진리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10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시간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환란의 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남은 자를 일으키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을 세우시옵소서. 열방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한 영광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자유, 영광의 풍성, 영광의 능력을 이 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거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왕과 나라를 세우는 권세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의 한 지체마다 영화로운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속만 있으면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드러지는 예물을 축복합니다. 첫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마음껏 흠향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 곧 결핍의 시대가 오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계속 인색하고 경직되고 있지만 열방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까지 그랬듯이, 주고주고 또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영적 두로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풍성함의 역사를 끊이지 않도록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2020년, 종이 마음껏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단 한명도 빠짐없이, 우리 열방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